

# Economy Outlook

2021.8.11

Economist

임동민

3771\_9342

dmlim2337@iprovest.com

##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요약 및 함의

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(IPCC :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) 는 '이번 세기 중반까지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2021~2040년 중 1.5°C 지구온난화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'는 내용의 「IPCC 제 6차 평가보고서 제 1 실 무그룹 보고서」 승인.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

A. 현재의 기후 상태 : 산업화 이전(1850~1900년) 대비 2011~2020년 전지구 지표면 온도는 1.09°C 상승. 전지구 평균 해수면은 1901~2018년 0.20m 상승, 해수면 평균 상승 속도는 1901~1971년 1.3mm/년이나 2006~2018년 3.7mm/년으로 상승

B. 가능한 미래 기후 : 산업화 이전 대비 2081~2100년의 전지구 지표면 온도는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시나리오일 때 1.0~1.8°C,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시나리오일 때 3.3~5.7°C 상승. 1995~2014년 대비 2100년까지의 전지구 평균 해수면은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시나리오일 때 0.28~0.55m,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시나리오일 때 0.63~1.01m 상승. 특히, 산업화 이전 시기 50년에 한 번 발생했던 수준의 극한고온(폭염 등)은 1.5°C 지구온난화 도달 시에 빈도는 8.6배 증가 전망

C. 리스크 평가와 지역 적응을 위한 기후 정보 : 지구온난화가 심해질수록 한국 포함 동아시아에서 폭염 등 더위 관련 기후영향인자가 증가 및 호우와 홍수 강화, 빈번

D. 미래 기후변화 억제 : 1850~2019년 누적된 CO2 배출량은 2390GtCO2 으로 1890Gt((1861~1880)~2011년 누적)과 비교해 약 20% 정도 증가. 인간 활동에 의해 누적된 CO2 배출량과 지구온난화 사이에 거의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재확인하고 탄소중립 도달이 지구온난화 안정화 위한 전제 조건임을 밝힘. 또한, 지속적이고 강력한 메탄 배출 감축 시 에어로졸 감소로 인해 지구온난화 억제 및 대기질 향상

이번 보고서는 올해 11월 영국에서 개최될 유엔기후변화협약 제 26차 당사국 총회 (COP26)와 2023년에 시행할 첫 파리협정의 이행점검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관련 논의 시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보고서 승인의 의미가 매우 큼. 또한 탄소감축을 위한 국경 조정세 도입, 국가별 탄소감축 의무 강화 등의 움직임을 야기해 청정 및 재생 에너지 인프라 생태계로의 전환에 미칠 영향이 크게 작용할 전망

### [ Compliance Notice ]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 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조서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, 이 조서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이 보고서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 이 보고서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할 수 없습니다. 이 보고서는 학술적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논문 등에 학술적인 목적으로 인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게 먼저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.